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SLC 어학원> 대학 위치는 번화가에서부터 택시로 10분 거리에 위치 해 있었습니다. 규모는 3개 대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수용될 정도의 충분한 크기였고, 시설도 생활 전반에 있어서 지내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숙소 바로 앞에는 수영장도 있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서 금방 익숙해 질 수 있었습니다. <Holiday villa> 새로 옮겨진 기숙사는 위치와 규모, 시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하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핸드폰 사용에 있어 wifi 및 데이터 사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수업	1:1수업 (reading, voca) 과 그룹수업 (Toeic Speaking, MMC 뮤직비디오 등) 이 적절하게 시간표에 분배 되어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업 50분, 쉬는 시간 10분으로 아침 8:00 - 오후 5시 까지 총 8개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과제는 방과 후에 조금의 시간만 투자할 정도의 양이었고, 개인 선생님들마다 준비를 열심히 해 오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필드트립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주중에는 매 주 1회씩 2시간 가량의 수업 외 액티비티 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간단한 게임과 영어를 쓰는 게임 등을 했고, 주말 중 하루는 요트투어, 리조트 투어, 등산 등으로 기숙사 외에서 해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준비물은 수영복, 썬크림 등이 필요했고, 간단한 식비 정도만 필요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날씨는 많이 습했습니다. 비는 자주 내렸지만 길지 않은 시간동안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강해서 썬크림 등 피부보호 차단제가 필요했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안전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경제안전구역 내에서 돌아다니게 되어있어, 한 달 간 지내는데 있어 아무런 사고 없이 귀국했습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 시설은 생각보다 많이 양호했습니다. 점호가 10시여서 처음에는 빠르다고 생각됐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익숙해져 그리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0) 외부식당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에서 제공된 식단은 매우 맛있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을 위해 기호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2-3일에 한 번 씩 저녁만 친구들과 나가서 밥을 먹고 주로 학교식당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제가 필리핀에서 이용했던 교통수단은 지프니, 택시, 트라이시클입니다.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은 시장을 가기 위해 한 번 이용했었고, 주로 택시를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택시비가 저렴해서 여러 명과 나눠내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20만원	
쇼핑	8만원	

기념품	7만원	
유홍 및 기타	25만원	
합계	6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날씨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가서 옷을 잘 챙겨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가기 전에 필리핀 선생님들께 전해드릴 한국 기념품을 못 사간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는 4주가 정말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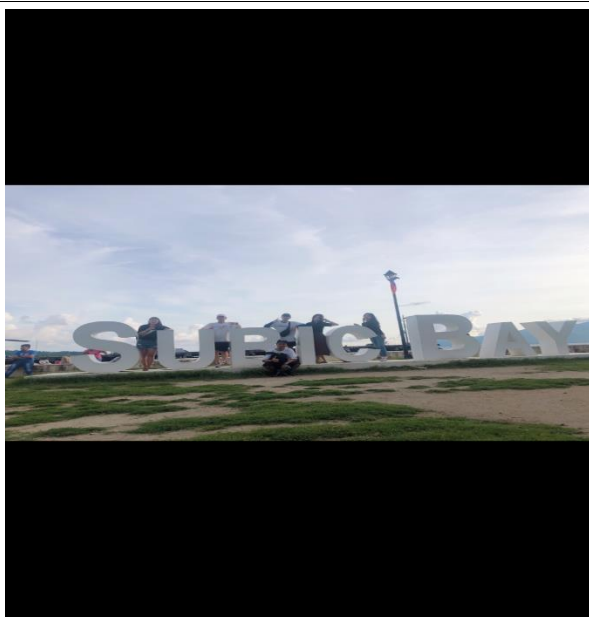
무엇보다 한국에 비해서 너무 더웠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SLC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다가오면서 길지 않은 시간에 정말 많이 친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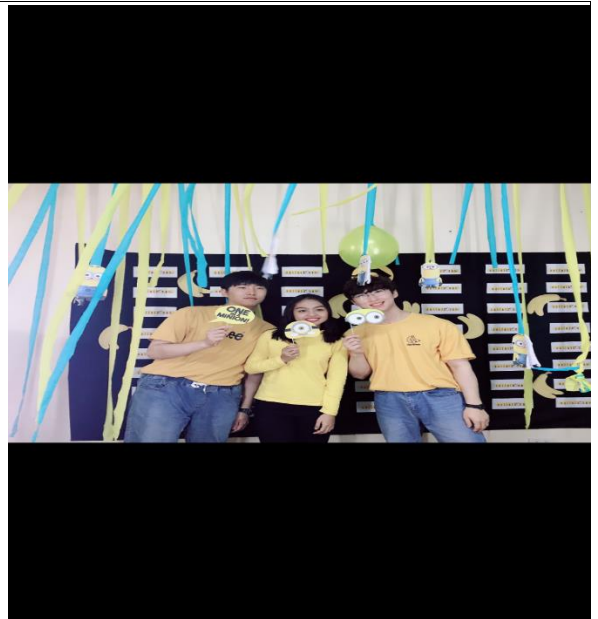
선생님들은 수업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룹 수업 뿐 아니라 1:1 수업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여러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좋은 방학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남은 방학동안 어학연수 간에 배운 토익스피킹을 조금 더 공부해서 8월 내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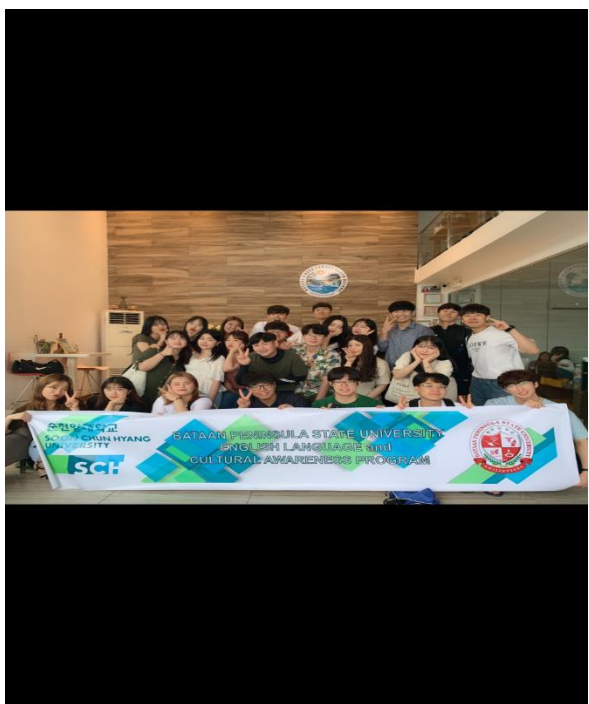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첫 째날 도착한 수빅베이



매주 금요일 마다 시행하는 Fun Fri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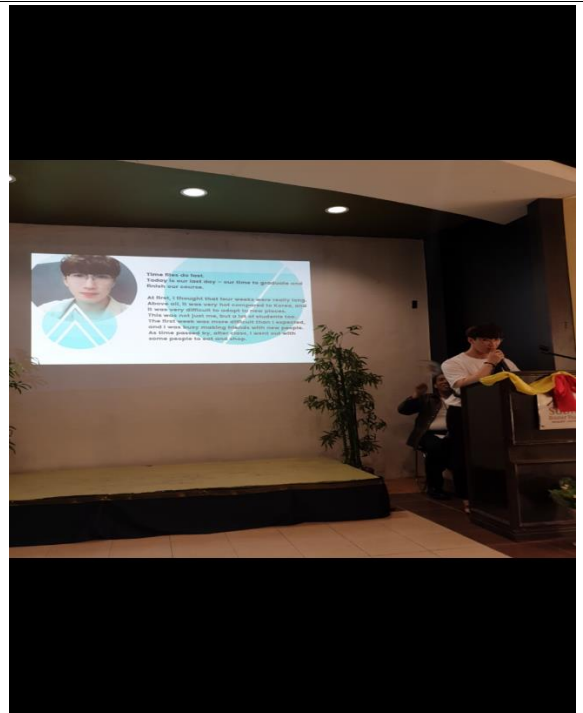
리조트 투어



요트 투어



Mt. Samat National Shrine



졸업식